

공원 탐방

푸른길 공원



남광주시장 앞에서 굵긴 푸른길공원



화장실로 바뀐 옛 남광주역사 부지



내부사정으로 문을 닫은 푸른길공원 내 철도차량

歩道 따로 푸른길 따로 ‘공간 낭비’

4 조선대 정문~백운고가

조선대 정문에서 남광주교가로 가는 구간은 보도와 푸른길이 다시 나뉘진다. 차도와 보도~푸른길~단독주택지역이 50cm 정도의 높이를 두고 배치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도와 푸른길을 공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지 의문이 든다. ‘걷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 공간이 조화를 이루거나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차라리 보도를 자전거 전용도로화함으로써 푸른길에서의 자전거와 걷는 이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편이 낫겠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구간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시설 설치도 문제점이 되고 있다.

푸른길 양편으로 벤치, 건강기구, 조형물, 나무테크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 시설들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걷는 이들이 앉아서 쉬는 곳은 극히 제한적인데 앉아서 쉴 곳은 넘쳐나는 것이다. 또 정작 걷는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화장실이나 세면대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주변 200~500m 범위에 위치한 주유소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돼 있으나 걷는 이에게 이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걷는 이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고 공급 위주로 시설을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관리비와 관리인원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친구와 함께 1시간을 걸었다는 조훈(80) 할아버지는 “도심에서 한가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좋다”며 “그러나 걷는 이에게는 필수적인 화장실이나 세면대, 식수대 등이 없어 불편하고 갖가지 시설에 투입할 돈으로 숲을 더 가꿨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대 정문에서 전남대병원을 지난 푸른길 공원은 남광주시장

벤치·나무테크 등 과도한 시설도 문제

옛 남광주역사 문 닫힌 철도차량 한량

여기서 좀 걸었다. 푸른길에서 나와 50여m를 걸어 전남대병원 앞에서 제봉로를 건너 뒤 다시 남광주시장 입구를 지나 푸른길로 들어 서야한다. 남광주시장의 노점상들이 푸른길공원으로 가는 길 양쪽에 줄지어 서 있으며, 푸른길을 걷다 잠을 보는 40~50대 주부들도 간혹 볼 수 있다.

푸른길 완공구간 7.9km 중 비어 있는 0.42km가 바로 옛 남광주역사 주변이다. 지상고가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설치가 추진되다가 민선 5기 들어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잠정 보류되자 지상고가를 지탱할 기둥이 설치될 이곳의 공원 조성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지상고가 경량전철이 들어선다면 이 좁은 도로 위에는 차량을 위한 고가과 전철을 위한 고가가 나란히 들어설 예정에 있어 푸른길공원은 물론 광주의 도심경관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 발전의 상징인 옛 남광주역사는 지난 2002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철거되고 그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이 들어섰다. 푸른길공원이 옛 철길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철로와 차량을 존치시켰지만 ‘내부 사장’으로 차량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주변은 남광주시장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걷는 이와 차량이 뒤섞이고, 바람이 일 때면 먼지로 뒤죽박죽이 되는, 푸른길의 최대 취약지점이 되고 있다.

이곳을 빠져나오면 광주천이 보인다. 광주천과 대남로를 잇기 위해 지난해 설치된 ‘걷는 이 전용 다리’가 있다. 그 밑에는 옛 철길이 남아있고, 다리 가운데서 보는 광주천 주변 경관은 길을 걷다가 잠시 맛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이 된다. 다리 형태가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나름의 멋을 살려 푸른길을 연결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대남로의 푸른길 역시 보도와 중첩되고 있다. 폭 5m가 넘는 보도와 푸른길이 1km가 넘는 공간을 함께하고 있으며 그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추후 공간구성 및 배치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있다. 정자와 나무테크, 건강기구, 벤치, 램프 등 각종 시설이 중복 설치돼 있고, 일부는 고장이 나거나 녹슨 채 방치돼 있는 것도 있었다. 길을 걸으며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푸른길공원 외의 공간도 있었다. 광주사람으로 중국의 음악성인으로 불리는 정음성의 상이 있으나 정자 지역민들을 위해 설명하는 글귀는 없이 오직 중국어로 된 표식만 있을 뿐이다.

이모(여·45)씨는 “이 길을 자주 오가지만 정음성씨가 누군지 모른다”며 “어떻게 한국에서 중국어로만 된 동상 안내판이 있을 수 있는냐”고 반문했다.

도심에서의 길은 그것 하나만으로 높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푸른길공원의 조성 배경과 목적은 모두의 공감대를 얻었으나 이후 공원으로부터 주변의 주택 및 상업시설을 연계하고,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며, 도심 곳곳에 산재돼 있는 역사·문화시설을 복원 또는 신설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푸른길공원을 만들었다는 광주의 ‘자긍심’은 지난 2001년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그 정점에서 하락하고 있는 듯하다.

/윤현석기자 chadodol@kwangju.co.kr



푸른길 공원에서 바라 본 광주천 주변



푸른길공원과 보도에 들어선 각종 시설물



푸른길공원을 걷고 있는 조훈 할아버지와 친구

도시제안

■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보고서

MK택시가 이어 방문한 곳은 긴키(近畿)지역의 택시사업을 총괄하는 운수국이였다.

담당자가 1층까지 직접 내려와서 우리 일행을 맞이해주었고 바로 12층에 마련된 교육장으로 이동하여 담당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짧은 브리핑이 시작됐다.

일본의 택시는 법인, 모범(Hired), 장애인, 개인택시 등으로 구분되며, 장애인 택시의 경우 1만8000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긴키지역의 택시 수는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모두 4만7742대(교토 9844대, 오사카 2만3542대, 나라 1285대, 와카야마 1850대 등)이며, 이 중에서 개인택시는 8200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2%에 불과하다.

개인택시를 풀기 위한 조건은 꽤 까다롭다. 나이는 3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10년 이상의 법인택시 운전경험이 있어야하고 매년 2~3회 운수국이 개최하는 법령·지리시험에서 90점 이상을 얻어

까다로운 운전자 자격·선발

일본 택시 요금·서비스 다양화



일본 교토시의 버스 승강장.

야 한다. 대부분이 시험에서 탈락하고 시험응시자는 사전에 각 조 합별로 모의시험을 본 뒤 결정된다. 이외에도 사업개시 기본자금과 차고 등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차량을 구입해 등록을 하려면 차고가 있어야한다. 주택이 이면도로 등에도 주차된 차량이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야 없다. 전부 건물의 1층이나 단지 내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도로를 비워 놓게 된 것이다.

법인택시는 운송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편리성과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 초 규제를 완화해 운임실정의 자율화에 따른 인가제, 할인제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오사카의 중형택시 경우 640엔부터 660엔까지 자유롭게 요금을 받고 있다. 이보다 더 낮은 요금도 있다.

일본 택시의 독특한 점은 요금을 차량 뒷면에 표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승객이 자유롭게 형편에 맞추어 탈 수가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택시들이 검정색이며 내부를 흰하게 볼 수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승객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거리할인, 전통복장 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학생 등에게도 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는 요금을 넘어 캐리어택시(견인차량택시), 하이브리드 택시, 전기자동차 택시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자전거 운반 택시까지 등장하고 있다.

김광훈 <광주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SINCE 1982 www.kjhr.com

- * 매우 잘 들립니다.
- * 안보입니다.
-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매장안내 ★ 가까운 매장에 오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225-9940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